

AI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난좌 재사용 금지를



이 철
(주)그린엔바이로텍 대표

1. 가금인플루엔자와 자유무역협정(FTA)

2004년 산업계의 화두는 가금인플루엔자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 두 단어를 빼고는 이야기가 안될 성 싶다. 지난해 말부터 중부권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에 이어 금년 2월 16일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통과는 정치권의 부정부패 기사를 제외하고는 방송매체에 가장 많이 오르 내린 기사로 국내는 물론 중국, 태국, 미국을 거쳐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남북의 길이가 가장 긴 칠레에까지 알려진 사건들이다.

이 두단어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리 준비했다면 좋았을 것' 이라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속담이 있으며, 고사성어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단어가 있다.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만 해도 초기에 '어 새도 감기 걸려?' 할 해프닝 정도의 한 단어가 이렇게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갈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이런 보도에 따른 소비자들의 과민반응으로 축산농가, 유통업체, 판매업자, 부자재 생산 및 납품업자들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피해,

더욱이 얼마간의 퇴직금에 빛까지 내어 소규모 치킨점을 내고 판매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내지는 자살까지 택

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줄 것인가!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미리 준비해 온 줄은 이미 알고 있다. 다만 방법이 부족했다고 본다.

2002년 10월 협정체결 이후 1년 4개월(비준안 국회 제출 후 7개월)가 가까이 끌어온 비준안이 2월 16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쯤 발효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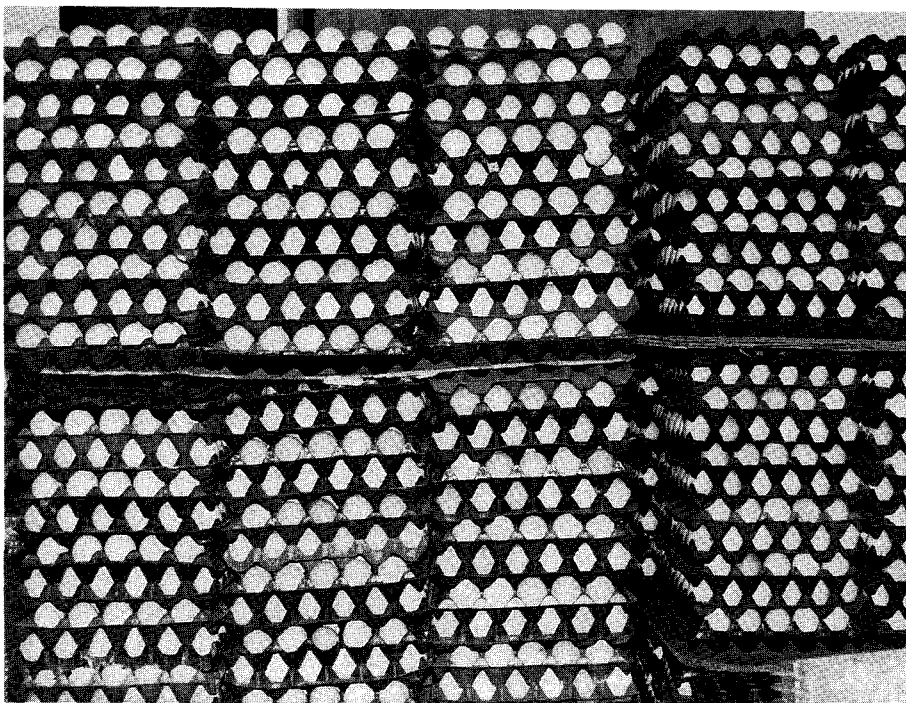
양계업과 관련하여 한, 칠레간 FTA에 따른 시장개방 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합사료는 즉시, 닭고기는 10년내 수입관세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배합사료 가격은 싸져서 축산농가에 이로울지 모르지만 칠레로부터 냉동닭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온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육계농가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작정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농어촌 지원은 국가에서 하되 축산농가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2. 플라스틱 난좌 재사용, AI 전파 요인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는 방역관리를 잘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7년 후 또는 그 사이에 미국, 중국, 태국 등과 FTA가 체결될 경우 육계농가로서는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뉴캐슬병과 더불어 양계업자들에게는 생각하기 싫은 단어이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을 분석,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양계장에서는 질병원을 옮길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채란농가의 경우 난좌의 재사용은 오염원을 옮길 수 있는 주요매개체중의 하나이다.

최근 일부 농가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

“

질병예방 및 환경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중고계란판 및 플라스틱 난좌를 여러번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에 정책적인 지원과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채란인들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킨 바 있다.

”

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난좌를 재사용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질병예방 및 환경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중고계란판 및 플라스틱 난좌를 여러번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에 정책적인 지원과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채란인들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킨 바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도 이 사실을 주지하여 질병의 오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3. 고부가가치 계란 생산에 관심을

채란업계도 앞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및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과수농가, 소사육농가, 돼지사육 농가에서는 질 좋은 상품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며, 이에 따른 상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어 소비자의 신뢰가 높은 상품은 이미 제 가격으로 받으며

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계란은 사실상 유통기간이 짧고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듯 하나 계란도 역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계란 소비자들이 이제는 일반란보다 영양란을 선호하며 더 나아가 유정란을 선호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의 계란상품을 개발하려는 농가들을 실망시키는 일도 다반사인데, 이름만 그럴듯하게 기능란처럼 붙여 판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름으로 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식품관련기관이나 공인된 연구소에서 기능성이 검증된 계란을 제외하고는 기능성이 없는 계란은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동이며, 고품질의 계란생산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행위가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계란의 질 저하를 가져와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며 계란하면 저가 상품이라는 낙인을 찍는 결과를 가져올 따름이다.

이도 역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계란의 차별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서 시장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FTA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란의 소비진작을 위하여 계란을 사용하는 다양한 요리방법을 개발하고 소비자들 직접 조리하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양계**